

## 한-칠레 FTA 발효의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4월 1일 발효됨에 따라 FTA 시대를 능동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국제신인도의 확보 및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게 된것에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후속 FTA 협상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 시켜주는 기회도 되었다.

일본, 싱가포르와의 정부간 협상, 아세안과의 산학연 공동연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FTA를 통한 수출 시장 확대를 적극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칠레 FTA의 공산품관련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 정부는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하고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6.2%, 칠레는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각각 10년 이내에 철폐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고 내국인 대우와 투자 이후단계에서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인대우를 부여하고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서 내국인대우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 양허안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자유화 비율이 유사하며 양국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공산품의 경우 (수출액 기준 66%)이 즉시 관세 철폐되어 수출 기회가 대폭 확대 되었다.

또 전자전기(휴대폰), 플리스틱(PVC, 필립 등) 등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공산품 전품목을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 한-칠레 FTA의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칠레 공산품 수출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시장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에 대한 관세(현행 : 6%)가 즉시 철폐되어, FTA 협정 지연으로 떨어졌던 칠레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고, 우리 수출품이 대칠레시장 및 남미 전체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 현지 진출 우리 자동차 업체는 FTA 발효즉시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어 전년대비 20% 이상의 판매신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 가전업체 및 종합상사는 휴대폰 수출이 30%이상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뿐 아니라 칼라TV, 전자레인지, VTR 등 각종 전자제품 수출도 전년대비 20%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최종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한 KIEP의 분석 결과(협정 발효후 10년 시점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수출입은 대칠레 수출이 5억 4400만불 증가,대칠레 수입이 2억 2400만불 증가 등으로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억 2000만불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칠레는 30여개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거점국가로서 칠레와의 FTA로 우리나라가 막대한 혜택을 거두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국의 산업 및 교역은 우리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구리 등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이므로 FTA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